

-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참가 -

언 론 보 도 사 항

□ 국내 보도

- 10. 01(목) : 중앙 / 전주비빔밥의 맛과 영양, 뉴욕서 알리다
 - 10. 01(목) : 전북/ 전주비빔밥, 뉴욕 '세계한식요리경연' 참가
 - 10. 01(목) : 뉴스천지/ 전주비빔밥과 뉴욕이 만난다
 - 10. 01(목) : 뉴시스/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중심 뉴욕의 입맛을 비빈다.
 - 10. 01(목) : 전라/ 전주시, 비빔밥 세계화 위해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 참가
 - 10. 01(목) : 새전북/ 문화의중심도시 뉴욕서 전주비빔밥 비벼진다
 - 10. 01(목) : 전주/ 전주비빔밥, 뉴욕에서 만나다
- ※ 별첨 : 보도자료(미국 현지)

□ 미국 현지보도

- 10. 06(월) : 한국/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전주비빔밥 Good~”
 - 10. 06(월) : 한국/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이상훈.노영승 씨 대상영예
 - 10. 06(월) : 한국/ CIA 모든 학생 의무적 한식 공부 친환경 식품 세계적 사랑 받을 것
 - 10. 06(월) : 한국/ 세계 3대 요리학교 CIA '최고 셰프들' 한식에 찬사
- ※ 별첨 : 보도자료(미국 현지)

□ 방 송

- 10. 12(월) : KBS 30분 다큐 '한식 세계화'

□ 보도자료(국내)

전주비빔밥, '세계문화 중심 뉴욕의 입맛을 비빈다'

전북 전주시가 비빔밥의 본고장인 전주의 지명도를 높이고 비빔밥의 맛과 영향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축제'에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10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미국 뉴욕 CIA와 맨해튼 일대에서 열리는 '뉴욕한인의 날'에 맞춰 열리는 한식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해 비빔밥 시식과 대형 퍼레이드를 펼친다.



특히 축제 첫날인 3일에는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분 시식을 벌이고 홍보부스를 운영해 비빔밥이 세계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서명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4일에는 라이브 요리경연대회인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를 참관하고 5일은 요리대회 본선 진출자와 외식업체 대표, CIA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비빔밥 산업화 및 세계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한국문화 인프라 구축 및 한식 산업 관계자간의 연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한다.

또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맨해튼의 강서회관에서 미국 외교부 관계자와 교수, 언론인, 한스타일 상품취급 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해 전주 한스타일 문화 홍보 설명회와 전주비빔밥의 우수성,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라종일 이사장이 집필한 '비빔밥 이야기' 영어 번역본 소개와 함께 비빔밥 만들기 시연, 비빔밥을 소재로 한 창작예술 범벅춤(DVD)과 음악을 관람한다.

전주시는 함께 전주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19대 회장인 한국문화연구재단 서진형 이사장을 전주비빔밥 홍보대사로 위촉해 위촉패도 전달한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는 한식 세계화와 연계해 전주비빔밥과 관광자원을 뉴욕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주비빔밥 등 전주음식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 명성과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 박원기 / 2009.10.01

전주 비빔밥의 맛과 영양, 뉴욕서 알린다 한식 요리축제 참가 ... 시식회도

전주시는 비빔밥의 본고장으로서 지명도를 높이고 비빔밥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축제'에 참가한다. 이 축제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미국 뉴욕 CIA와 맨해튼 일대에서 열리는 '뉴욕한인의 날' 행사 중 하나이다.

첫날인 3일에는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 분 시식회를 한다.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서명도 받는다.

4일에는 라이브 요리경연대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를 참관하고, 5일은 요리대회 본선 진출자와 외식업체 대표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비빔밥 산업화 및 세계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맨해튼의 강서회관에서 미국 외교부 관계자와 교수, 언론인, 한스타일 상품취급 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해 전주 한스타일 문화 설명회 를 가질 예정이다.

중앙일보 = 장대석기자 / 2009.10.01

전주비빔밥, 뉴욕 '세계한식요리경연' 참가

전주시(시장 송하진)와 전주문화재단(이사장 라종일)이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10월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에 참가한다.

오는 10월7일까지 5일간 미국 뉴욕 CIA와 맨해튼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뉴욕한인의 날 퍼레이드와 한식요리경연대회(본선) 및 한식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운영, 학술대회 등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시와 문화재단은 3일 뉴욕 한인의 날을 기념,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 분 시식과 함께 전주비빔밥 관련 대형 퍼레이드를 펼친다.

또 홍보부스를 마련해 전주비빔밥을 판매하고, 한스타일 품목을 전시 홍보하는 한편 전주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한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 등록'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식요리경연 본선 진출자 및 외식업체 대표, CIA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비빔밥의 산업화 및 세계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비빔밥 활성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주비빔밥과 관광자원을 뉴욕에 홍보한다는 데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주비빔밥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 구대식 기자 / 2009.10.01

전주비빔밥과 뉴욕이 만난다

전주시(시장 송하진)와 전주문화재단(이사장 라종일)은 비빔밥의 맛과 영양 등 비빔밥의 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 진출을 위해 '해외 전주 전통음식문화 축제 참가'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에 참가한다.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는 뉴욕한인의 날 퍼레이드와 한식요리경연대회(본선) 및 한식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운영, 학술대회 등으로 나뉘어 오는 10월 3일~7일까지 5일간 미국 뉴욕 CIA 및 맨해튼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에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내달 3일 뉴욕 한인의 날을 기념해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천인 분 시식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전주비빔밥을 형상화한 대형 퍼레이드를 펼친다.

또 홍보부스를 마련해 전주비빔밥 편의식을 판매하고 전주한지 등 일명 한스타일 품목을 전시 홍보하고 전주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한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등록' 서명운동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달 4일부터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참관과 전주비빔밥과 한스타일 관련 세미나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전주비빔밥 홍보대사로 뉴욕한인경제인협회 19대 회장이자 한국문화연구재단 서진형 이사장을 위촉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는 한식 세계화와 연계하여 전주비빔밥과 관광자원을 뉴욕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주비빔밥 등 전주음식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 명성과 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천지 = 이현정 / 2009.10.01

전주시, 비빔밥 세계화위해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 참가

전주시가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에 참가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10월 3일부터 5일간 미국 뉴욕 CIA와 맨해튼 일대에서 열리는 '뉴욕한인의 날'행사의 한식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비빔밥 시식행사와 대형 비빔밥을 형상화한 대형 퍼레이드를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분 시식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판매 및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 등록 위한 서명받기,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본선 진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비빔밥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가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식 세계화와 연계해 전주비빔밥과 관광자원을 뉴욕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전주음식 이미지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일보 = 권희성 기자 / 2009.10.01

전주비빔밥, 뉴욕에서 만나다

한인의 날 기념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참가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비빔밥의 본고장인 전주의 지명도를 높이고 비빔밥의 맛과 영양 등 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를 위해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에 참가한다.

전주시가 참여하는 이번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욕 CIA 및 맨하탄 일대에서 열리며 뉴욕한인의 날 퍼레이드와 한식요리경연대회(본선) 및 한식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운영,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3일에는 뉴욕 한인의 날을 기념하며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분 시식과 함께 약 1시간동안 전주비빔밥을 형상화한 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한 전주시 홍보부스를 통해 전주비빔밥 편이식을 판매하고, 전주한지 등 한스타일 품목을 전시 홍보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음식문화의 하나인 전주비빔밥을 세계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비빔밥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4일에는 세계인들에게 한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식문화를 통한 국가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라이브 요리경연대회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에 참관한다.

이어 5일에는 전주비빔밥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호응도와 전주 한스타일 관련 상품수출에 따른 시장조사를 위해 뉴욕 일대 한식당을 방문하여, 세계 각국의 한식당간의 교류시스템을 검토하고 세계화 가능한 한식메뉴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6일에는 한식요리경연 본선 진출자 및 외식업체 대표, CIA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비빔밥의 산업화 및 세계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장경운(전주시 한스타일과장), 한복려(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서정옥(서정쿠킹 대표)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한국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한식 산업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날인 7일에는 미국 맨하탄 강서회관에서 미국 외교부 관계자, 교수, 언론인, 한스타일 상품취급 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 전주 한스타일 전통문화 홍보 설명회를 마련해 전주비빔밥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발표와 라종일 이사장이 집필한 '비빔밥 이야기' 영어 번역본 소개와 함께 비빔밥 만들기 시연 및 비빔밥을 소재로 한 창작예술 범벅춤(DVD)과 음악을 관람할 예정이다.

문화의 중심 도시 뉴욕서 전주비빔밥 비벼진다

세계 문화의 중심 도시인 뉴욕에서 전주 비빔밥이 첫 선을 보인다.

30일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비빔밥의 본고장인 전주의 지명도를 높이고 비빔밥의 맛과 영양 등 우수성 홍보 및 세계화 진출을 위해 해외 전주 전통음식문화 축제 참가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 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미국 뉴욕 CIA 및 맨하탄 일대에서 펼쳐진다.

오는 3일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32번가 코리아타운 일대에서 전주비빔밥 1,000인분 시식과 함께 약 1시간동안 전주비빔밥을 형상화한 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4일은 세계인들에게 한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 시키기 위한 라이브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5일에는 상품 수출에 따른 시장조사를 위해 뉴욕 일대 한식당을 방문해 세계 각국의 한식당간의 교류 시스템을 검토하고 세계화 가능한 한식메뉴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6일은 한식요리경연 본선 진출자 및 외식업체 대표, CIA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비빔밥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마지막날인 7일은 미국 맨하탄 강서회관에서 미국 외교부 관계자, 교수, 언론인, 한스타일 상품취급 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 전주 한스타일 전통문화 홍보 설명회를 마련하여 전주비빔밥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한식 세계화와 연계해 전주비빔밥과 관광자원을 뉴욕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주비빔밥 등 전주음식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 명성과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 이강모 기자 / 2009.10.01

□ 보도자료(미국 현지)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전주비빔밥 Good~"

'한인의 날' 한식기업 홍보부스 뉴욕커들 100m 줄 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미국 뉴욕이 한국의 맛과 멋에 흠뻑 빠져들었다.

2일(현지 시간) 뉴욕 중심가에서 한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코리아 퍼레이드는 2회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세계권역대회 참가자들의 거리 행진과 지자체 기업 등의 전시 행사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다.



이번 대회 출전자들과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조직위원회들은 이날 한국 전통 민화화가 서공임 화백의 호랑이 그림을 디자인한 현수막과 깃발, 전통 태극선 등을 흔들며 거리 행진과 카 퍼레이드를 벌였다.

퍼레이드를 관람하던 뉴욕 시민들은 조리모와 앞치마 등 웨프 복장에 녹색 조리 스카프를 착용하고 태극마크를 단 출전자들에게 큰 환호성으로 답했다.

이날 이번 대회 홍보 대사로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함께 퍼레이드를 선두에서 이끈 2009 미스코리아 미 이슬기, 미 한국일보 최지희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황금침선이 준비한 궁중 당의를 선보였다.

조직위가 '한식 세계화 산업화 상품'으로 선정한 전주비빔밥과 매일식품의 전통 장류, 서정쿠킹의 분말 소스도 32번가 한인타운에 마련된 부스에서 각각 샘플링 행사를 통해 현지인들과 만났다.

특히 200인분이 준비된 전주비빔밥 편의식은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쉽게 전통 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 전주비빔밥에 관한 영문 설문 조사도 병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부스 앞 약 100m까지 시민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정쿠킹이 불고기 분말 소스를 이용해 즉석 조리한 불고기의 시식 행사와 매일식품의 장류 샘플링 행사도 많은 뉴욕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한식 열풍은 4일 미국조리중앙학교에서 열린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로 이어졌다.

한국일보 뉴욕= 김대성기자 / 보도일 : 2009.10.06

